

업무데이터 AI처리 지침

AI 기반 간편행정(대학발전계획 11.2.2)을 위한 기초 데이터 축적 세부실행계획

평소처럼 기록하고, AI가 초안을 만들고, 사람이 승인한다.

AI기획·발표자료(PPT)

염경준 (호남학연구원 조교)



이번 학기의 기록이 다음 학기의 준비가 되게 할 수 있을까

조교 업무는 본부·단과대학의 지시로 시작되고 학기별 일정에 따라 반복된다. 그래서 이번 학기의 기록이 다음 학기에 쓸모가 있다.

지식노동자가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쓰는 업무시간의 비율
(McKinsey, 2012)

19%

임용 직후에는 규정·매뉴얼·공문을 찾고 부서에 묻는 시행착오가 그만큼 쌓인다

이전 기록이 남지 않는다

- 규정·매뉴얼·공문을 그때그때 찾아 헤맨다
- 처리한 파일이 개인 폴더에 흩어진다
- 업무일지를 따로 써야 한다



이후 기록이 저절로 쌓인다

- ✓ 업무 제목·기한·내용만 넣으면 정해진 양식으로 저장된다
- ✓ 기록이 한곳에 모여 다시 찾을 수 있다
- ✓ 업무일지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졌다

"열심히 기록했다"가 아니라 "번거로움을 없앴더니 쌓였다" —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.

개인은 앞서가고, 조직의 데이터는 비어 있다



대학 차원의 도입이 이미 시작됐다

-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출시
(미시간대, 2023)
- 교직원에게 ChatGPT Enterprise 제공
(애리조나주립대, 2024)
- 데이터·AI TF신설, AI시범 서비스, 경진대회
(서울대, 2025)
- AI 활용지침, AI시스템 도입 정책표준 마련
(부산대, 2026)

전남대학교는 생성형 AI 8종을 무료로 제공, 입시·규정 챗봇 도입, 업무자동화(RPA)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(발전계획 11.2.2)

기존 챗봇과 이 기획의 데이터 차이

구분	기존 챗봇	이 기획
근거 자료	규정·공지·누리집 등 공식 문서	실제 업무기록
답할 수 있는 질문	무엇을 해야 하는가	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

이 기획은 축적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르다. 공식 문서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한다.

출처: Robert, J.(2026). The impact of AI on work in higher education. EDUCAUSE.
University of Houston(2025). Shasta chatbot: Ready to answer your online questions.

조용민·김성진(2026). 학사 정보 검색을 위한 RAG 기반 챗봇 시스템에 대한 연구.
전남대학교(2026). 2026~2029 전남대학교 대학발전계획, 62-63.

기록은 쌓였지만, AI가 읽을 수 없었다

175

두 달간 쌓인 업무기록(건)

2026년 5월 말~7월 중순 · 근무일 약 45일

3.9

하루 평균 기록(건)

목표·강제 없이 축적

131

검토 단위(개)

월별 반복업무를 묶은 단위

표준 머리말 작성률

100%



본문 200자 미만 비율

87%



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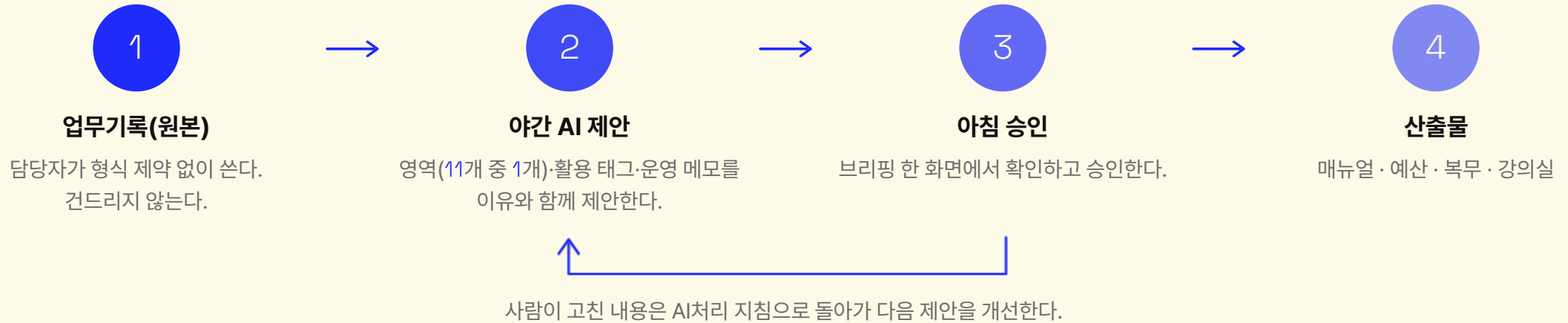
분류 태그 0건 — 형식은 갖춰졌으나 분류 정보가 없다.

AI 초안의 한계 실증

- AI가 만든 5축 분류를 전수 검증한 결과 1축만 유지
- 영역 7개 → 11개로 재설계
- 논문·입시·장학 영역은 AI 분류에 없었다

필요한 것은 AI 사용 여부의 결정이 아니라, AI 초안을 사람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이다.

평소처럼 기록한다. AI가 밤사이 제안하고, 사람이 아침에 승인한다.



아침 브리핑 = 승인 창구 한 업무마다 네 칸이 나란히 놓인다

01

업무

어느 업무에 대한 제안인지

02

담당자가 쓴 내용

원본 기록을 그대로 보여준다

03

AI가 반영할 내용

영역·활용 태그·운영 메모와 그 이유

04

승인 · 수정

사람이 판단해 승인하거나 고친다

개인정보

개인정보는 업무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무엇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지 기존 기록을 전수 확인해 검출 기준을 만든다.

계획안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마쳤다

131개 업무 단위를 전수 검수했다. 반려율 34%는 사람의 승인이 실제 검증으로 작동했다는 근거다.



98건에 운영 메모 반영
(기존 본문 수정은 없음)

94건 활용 태그
(매뉴얼·복무·강의실·예산)

앞 단계의 기록이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된다

- 01 작업지시서 — 목표와 범위를 정한다
- 02 재분류 시트·검수표 — 내 판정과 승인을 남긴다
- 03 분석 문서 — 기준과 누락을 확인한다
- 04 영역 정의서·처리 규칙 — 다음 업무의 기준이 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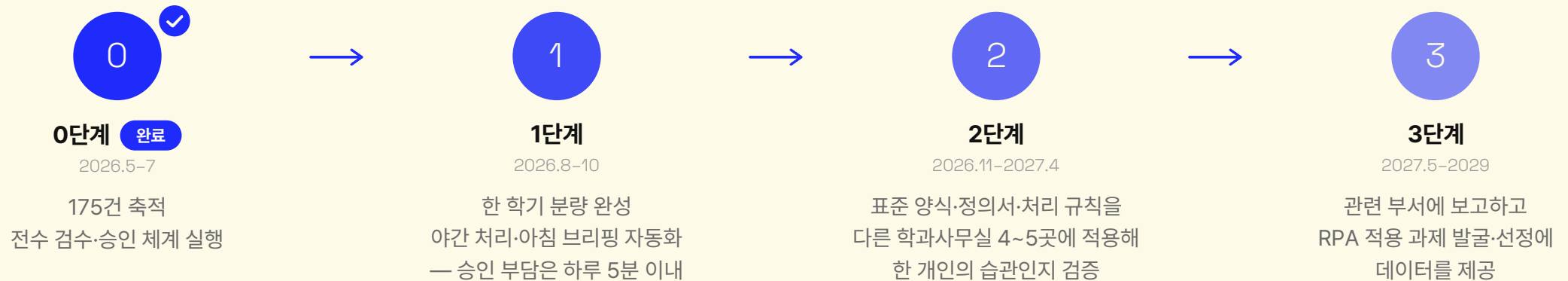
대량 작업은 백업 → 사전 점검 → 적용 → 전후 비교 순서로 진행했다.

선행연구 검토 결과와도 일치한다. 김상홍(2026)은 정형·반복 업무부터 AI를 적용하고, 복합 기획 업무에서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.
이에 이 기획에서도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AI 결과를 사람이 검토하도록 설계한다.

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사람이 검토한다.

출처: 김상홍(2026). 대학 교직원의 생성형 AI 지속사용의도와 RAG 기반 sLM 적용 가능성 연구.

새로 구축할 시스템이 없어서, 지금 시작할 수 있다



필요한 것 — 이미 있는 도구(메모 앱·메신저 봇·AI 에이전트)와 지침 문서뿐이다

새 예산이 아니라, 이미 있는 제도로

시스템 구축비는 0원이다. 예산은 AI도구 구독료뿐이다.

01

0·1단계

월 6만원

개인 구독(AI 에이전트 2종)

02

2단계 시범 적용

월 12~15만원

참여자 4~5인 구독료(AI 에이전트 1종)

03

시스템 구축비

0원

파일을 직접 읽고 쓰는 에이전트 작업이라 별도 구축이 없다

참여 유인도 이미 있는 제도로 — 교직원 정책연구과제 참여 등

대학이 새로 만들 것이 없다. 이 최소 예산 구조가 "조기 실행 가능한 주제"라는 대회 요건을 충족하는 근거다.

기록은 한 번, 활용은 여러 번

같은 원본에서 챗봇 근거·RPA 목록·매뉴얼·성과관리 데이터가 나온다.

01

기초 데이터

챗봇 답변 범위를 실제 창구 지식으로 확장
반복 업무를 업무자동화에 적용

02

업무 경감

업무 진행 시 기존 처리 과정의 손쉬운 확인
매뉴얼, 인수인계서 등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음

03

행정절차 간소화·성과관리

업무 처리 특성·패턴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
상위 지표와 연계하여 성과관리에 활용

AI 활용이 학과 운영에 도움이 된 사례

197 건의 학생 데이터를 구조화해 각종 문의에 대응

80 분 분량을 실전 처리한 동시통역 자막 개발(국제학술대회)

기록은 쌓이고, 시간은 사람에게 돌아온다

만들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, 학생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학과사무실이다.



감사합니다

기록은 한 번, 활용은 여러 번

업무데이터 AI처리 지침 · AI기획·발표자료(PPT)

염경준 (호남학연구원 조교)